



<GHC, Global Harmonization Center>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출범

-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 국제 규제조화 선도 추진
- 2009년 식약처 내 설립 ‘APEC 규제조화센터’ 확대·개편… 현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 Global Harmonization Center)’를 2월 1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 ‘범세계적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조화 선도기관’이라는 목표 아래 오유경 처장 등 식약처 간부들이 참석한 GHC 현판식을 2월 17일 개최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APEC 규제조화센터(AHC)*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조화에 대한 국제 활동을 추진한다.

*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 :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9년 식약처에 설립한 기구. APEC 지역 내 의료제품의 규제조화를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GHC는 앞으로 국내외 규제기관 및 국내 업계를 대상으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관심도가 높고 국내 업계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외 규제기관과 국내 업계를 연결하여 국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올해 계획 : 최신 규제동향을 국내 업계에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업계가 신속하게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또한, 규제조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외교를 강화한다. WHO, ICH, 세계제약연맹 등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조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규제 역량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현판식 사진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책임자	과장	김희성 (043-719-2911)
		담당자	연구관	전형욱 (043-719-2913)



